

델타변이·2030·접종후 감염 ‘삼중고’

델타변이 광주 44명·전남 56명
 휴가철·방학철 대부분 2030세대
 백신 접종 후 감염 광주만 61명

광주·전남에서 전파력이 매우 강한 인도발(發)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속출하고, 휴가철과 방학철을 맞아 2030 세대의 감염도 끊이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돌파 감염 등 백신 접종 후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해외 변이바이러스는 광주가 44명, 전남이 56명으로 합쳐서 100명에 이른다.이 중 60명은 영국발 알파 바이러스, 40명은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들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23일 첫 델타변이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13명(해외 5명, 국내 9명), 지난 10일 이후 12명이 쏟아져 나왔다. 경기도 마포구 음식점 관련, 수도권발 n차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여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발 집단 감염자 25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

도 델타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알파 변이 감염 속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달 들어 변이에 감염된 목포, 완도, 강진, 장흥, 영암 등의 확진자 25명 중 17명의 바이러스가 인도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휴가철을 맞은 여수지역 등 관광지 숙박업소가 외지인들로 만실을 기록하고 있어 델타 변이에 따른 추가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여수지역은 22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1주일간 방역수칙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백신 미접종층인 젊은 세대 감염도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전체 누적 확진자 3209명 중 20대 489명(15.2%), 30대 387명(12.1%)로 20~30대가 27.3%를 기록 중인데 비해 올해 7월 이후 2030세대 감염자는 47%(259명 중 116명)로 20% 포인트나 높다.

백신 미접종 연령대인 20~50대로 넓혀보면 전체 확진자의 62.3%, 7월 확진자의 74.9%로, 최근 확진세가 역시 두드러진다. 백신 효과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남지역도 최근 확진의 절반 가량이 2030

세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신수급난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광주가 31.4%, 전남은 40.7%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절반 이상이 미접종 상태다.

백신 접종 후 감염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만 놓고 보면 61명으로, 1차 접종 후 감염이 56명, 2차 접종 후 5명 등이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뒤 감염된 ‘돌파 감염’은 현재까지 1명에 그치고 있으나 질병청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지역 내 감염자 중에도 델타로 인한 사례가 급증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환기, 유증상자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들어서 다시금 엄중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적극 참여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수습·경력기자 모집

“지역언론의 선봉장인 호남신문에서 재능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모집부문·인원 : 수습·경력기자 0명
- ▶ 지 원 기 간 : 채용시까지
- ▶ 지 원 자 격 : 학력·나이제한 없음
- ▶ 전 형 방 법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
- ▶ 제 출 서 류 : 이력서(사진 부착)·자기소개서 각 1부
- ▶ 접 수 방 법 : 등기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ihonam@naver.com)
- ▶ 접수처 :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문의전화 : 062-229-6000)

호남신문



영광군이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백수해안도로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사진=영광군 제공)

영광 백수해안도로에 선별진료소 운영

영광군, 31일까지 휴가철 ‘외지 관광객’ 특별방역대책 시행

영광군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 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은 전남도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백수해안도로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토·일요일 주말에만 운영한다.

이곳에선 ‘신속 항원검사’를 통해 10~20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곧바로 확인하고 지역사

회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미리 차단한다.

또 관광객을 상대로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교육을 통해 개인위생의 중요성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수도권 등 타지역 발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방역을 집중하고 있는 영광군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했다.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외부 유입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영광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침부터 32도...’ 광주·전남 폭염특보 강화

12개 시·군 경보 등 전역에 특보
 온열질환자 광주 12명·전남 47명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 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강화됐다.

광주기상청은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양·곡성·구례·영암·무안·장성 등 전남 6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격상 발령했다.

광주와 전남 나주·순천·화순·영광·함평·담양 등지에 내려진 폭염경보도 유지 중이다. 나머지 전남 10개 시·군에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오전 10시 기준 기온은 순천 32.1도, 광양 광양읍 31.7도, 고흥 도양 31.6도, 강진 30.9도, 장흥 30.5도, 해남 30.5도, 진도 30.3도 등이다. 광

주 공식 관측지점인 윤암동은 28.9도다.

일사량이 많아지는 오후 3시께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35도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23일까지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노약자는 오후 시간대 외출을 삼가고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여름 들어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는 광주 12명, 전남 4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동취재본부

금·토요일 쉽다

홈페이지
 i-honam.com

청정전남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원년의 해’ 선포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탄소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전남

청정
 에너지

청정
 산림

청정
 산업

청정
 생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 T. 061) 286-7821~4